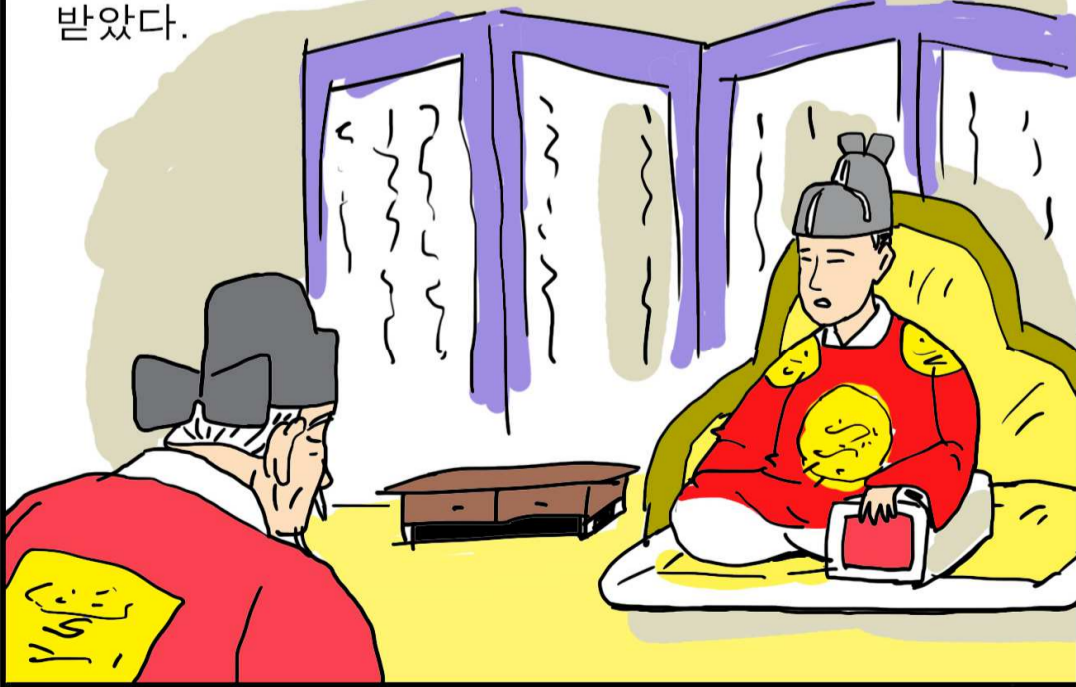


45. 나아감 보다는 물러남을 택하다(69세)

겸재의 압구정도:
압구정과 강 건너 퇴계가 배를 탔던 동호(현재 옥수동)가
보인다. (현재 동호대교가 있는 자리)



그동안 여러 차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간청하던 퇴계는 69세가 되서야 마침내 임금 선조의 허락을 받았다.



선조는 도승지를 불러 하명했다.

연도에 말과 뱃사공을
내려 보호하도록 하시오.

예으이



윤허가 내리자 정오에 하직을 하고 도성을 나와
해 질 무렵 한강변 동호에 있는 몽뢰정에 이르렀다.



*동호: 옥수동 한강변 지역의 옛 지명

몽뢰정은 독서당 시절 같이 공부했던
판서 임당 정유길의 정자였다.

대감,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하루
묵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다음 날 3월 5일 아침

떠나는 퇴계를 전송하러 뒤늦게 소식을 접한 조정의 동료들과
장안의 백성들이 동호에 몰려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봉 기대승이 배 위에 올라 이별의 아쉬움을
송별시로 지었고,

한강물 넘실넘실 밤낮으로 흐르는데
선생의 이번 걸음 어찌하면 만류할꼬
백사장 가 닦줄 잡고 머뭇거리는 곳
이별의 아픔에 만 섬의 시름 끝이
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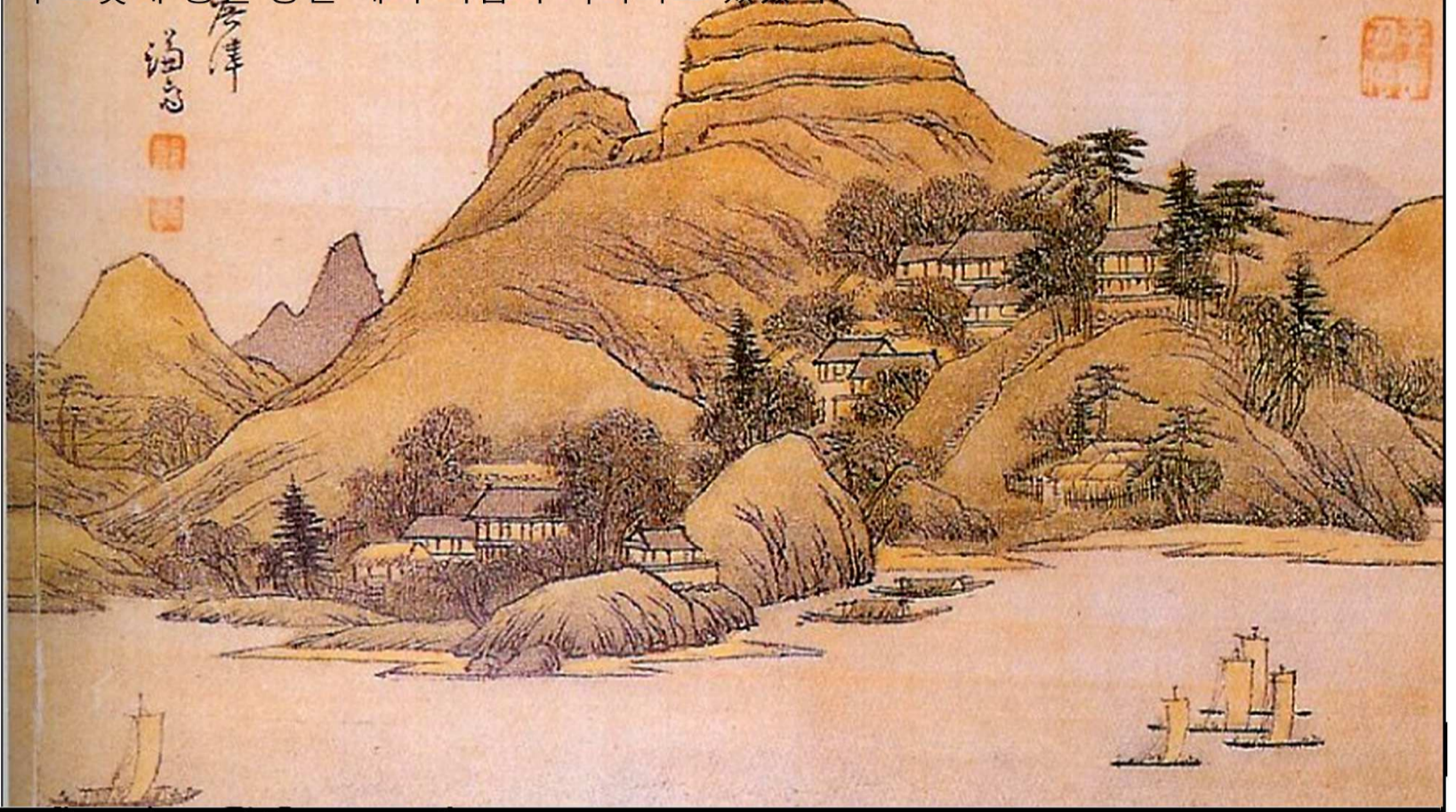


퇴계도 이를 시로 화답했다.

"배에 나란히 앉은 이들 모두가 명류들
돌아가려는 마음 종일 붙들려 머물렀네
원컨데 한강물 떠서 벼루에 담아 갈아서
끝이 없는 이별의 시름 써내고 싶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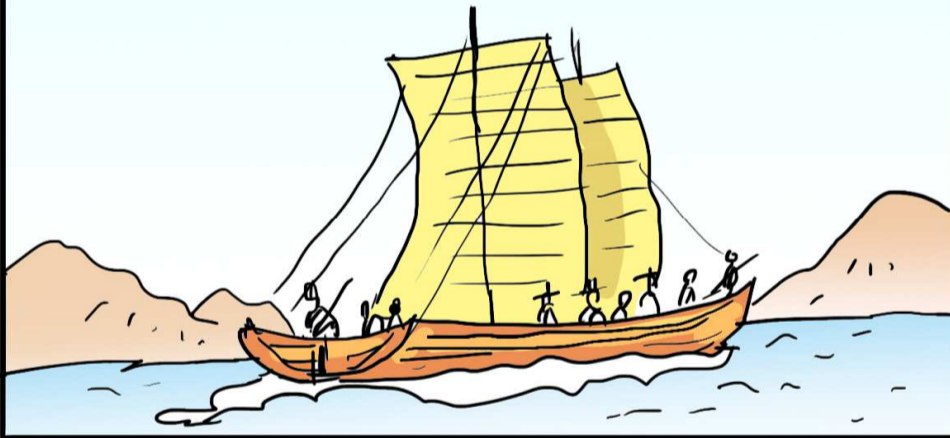


모두가 아쉬워하는 속에서 강을 건너 봉은사에 하루 묵고 3월 6일 한강을 거슬러 올라 광나루에 이르니 그곳에 병환 중인 제자 이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겸재 정선이 그린 조선의 광나루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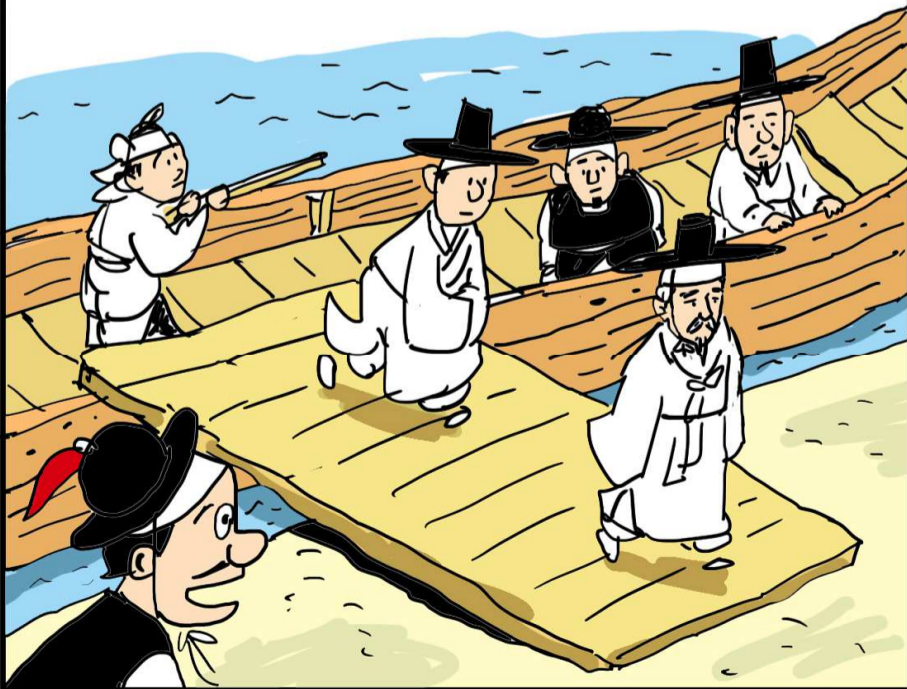
나흘째 되는 날(3월 7일) 남양주 마재를 지났다.



두물머리(양수리)에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여울(대탄)에서 묵었다. 이곳까지 제자 잠재 김취려가 따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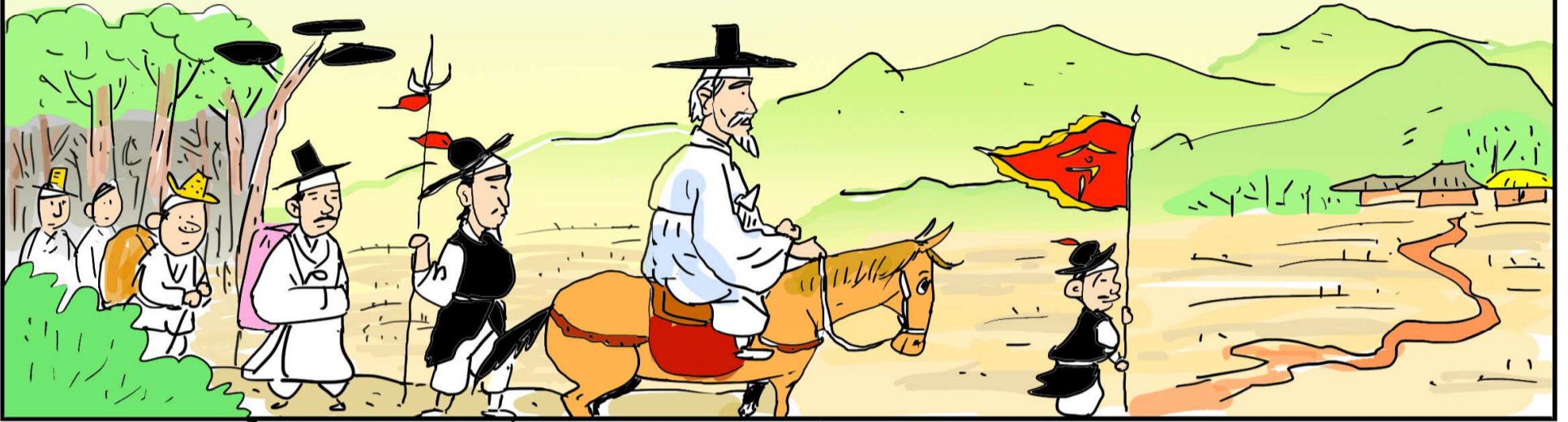
이후 여주를 지나 충주, 가흥창을 거쳐 달천에서 배에서 내렸다.



3월 12일 청풍, 3월 13일 구담, 3월 14일은 풍기, 영주에 도착해서 이틀을 묵고



3월 17일 서울을 떠난지 14일 만에 퇴계는 고향에 돌아왔다.



450년 후, 봉은사



2019년 4월 9일(음력 3월 5일)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따라가는 재현 행사를 450년 전에 선생이 봉은사에서 숙박하였던 날짜에 맞추어 시작했다.

퇴계선생께서는 높은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것 보다는 물러나서 고향에 머물며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여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에 힘을 보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번 귀향길 재현 행사는 퇴계의 삶과 정신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심신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어 그 의미가 깊다.

